구멍 뚫린 AI 방역 시스템

유통업자 3차례 방역대 통과 '충격'

김제지역 오리 방제망 설정 후에도 전남 유통

전파 요인 다양 … 방역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14일 나주 반남 오리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결과가 영암에 이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전북지역 오리가 전남지역 음식점 등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AI방역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뚫린 방역시스템=전남도는 닭과 오리가 집단폐사한 함평군 월야면 오리농장 등 도내 11군데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감염 가능성에 대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나주 반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14일 확인됨에 따라 방제 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나머지 10군데 농장의 조사 결과도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

또 오리 유통업자가 AI 첫 발생지인 전북 김제지역의 오리를 방제망이 설정된 이후 농가에 사들여 이를 전남북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AI의 특성 때문에 가금류의 엄격한 이동통제를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AI 발생 직후부터 철저한 이동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오리 유통업자는 3차례나 이 방역대를 드나들며 오리를 사들였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방역당국의 이동통제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AI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실 AI 발생 초기에는 이동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탑 차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털어놨다.

◇방역체계 전면 재검토해야=전남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확인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100여개 농장에 대해 AI방역 매뉴얼에 따른 차단방역과 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AI긴급행동지침'에는 AI로 의심이 되는 닭이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면 가축 살처분,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역학조사 실시 등 긴급방역에 들어가도록 돼있다.

현 방역 시스템 상 AI는 예방이 우선이며, 발생시 차단 방역은 불가능하고 살처분만이 전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검역원의 AI매뉴얼 단계별 조치보다 하루 이상 빠르게 살처분하는 등 방제하고 있으나 발생원인을 모른 상태라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의 발병없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4일 오후 영암군 덕진면 인근 도로에서 31사단 소속 군인들이 AI의 이동을 막기 위해 차량을 서행시키며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I 불법유통자 처벌 강화 시급

솜방망이 처벌에 전염병 확산 주원인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정읍과 익산 등지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가금류 불법유통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불법 유통한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농가나 판매업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AI 감염이 예상되면 농가에서 서둘러 닭과 오리 등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경찰은 14일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김제시 용지면의 A오리농장에서 오리 40마리를 중간 유통책 박모씨로부터 넘겨받아 김제 시내 한 식당에 넘긴 혐의로 닭·오리 판매업자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또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를 싣고 익산시와 김제시 등 3~4곳을 다닌 사실이 밝혀져 이들 지역에서의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통책 박씨는 김제시 용지면에서 구입한 오리 600마리중 560마리를 자신이 평소 거래하던 부안과 김제, 군산, 익산 등지의 음식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AI 사태가 자칫 도내 전 시·군으로 전파될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A농장은 올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김제시 용지면의 농가로부터 1.7km 떨어진 '위험지역' 내에 있어 가금류의 이동이 지난 2일부터 엄격히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지만 유통업자들은 버젓이 지난 4~6일 오리를 밀반출해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익에만 눈이 먼 유통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전국의 28%를 차지하는 전북지역 양계농가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

■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 FTA 비준·북핵 공조 강화

한일, 셔틀외교 재개·경협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관해, 일본과는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된 만큼 이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향후 바람직한 한미동맹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및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을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와 관련, 양국이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시 대통령은 자국내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한일정상회담=21일로 예정된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성숙한 동반자 관계 지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우선 이전 정권에서 틀어졌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셔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실질적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양국 재계간 '경제협력 협의체'구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미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사이에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사를 열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 독도 영유권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미

15일부터 11일간 … 박지원 당선자 수행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15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는 하버드대 총장과 포틀랜드 시장, 전미국제문제협의회 등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대통령은 모두 5차례의 강연과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의 성공과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틀랜드시는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18일을 '김대중의 날(Kim Dae-jung's Day)'로 선포하고 한미 양국민간의 우호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J의 이번 방미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수행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